

월/요/광/장

김화중



1년에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버려지 고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은 이를 중 많은 수가 곧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려 오고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 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기대가 헛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시설 운영자들은 그 기대의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가정의 붕괴에서 빚어지는 사회현상이다. 그런데 붕괴되는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는 오늘날 국가적 과제로 떠올라 시대의 화두가 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도 깊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가정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건강 가정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의 초점은 가정문제의 예방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50여개 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설치되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건강가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상

국회가 가정을 없앨 것인가?

임위원회가 제정·시행된 지 1년 반을 갖 넘긴 건강가정기본법을 폐기하는 가족정책기본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법사위에 부의되어 있다.

이 법안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포함하는 더 넓은 기본법이라고 한다는데, 이는 국민을 기반하는 쳐사이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가정'을 말살하고 있다. 우선 법의 명칭부터 '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면서, 법의 목적에서 건강한 '가정'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로 바꾸었다(제1조). 이어서 기본이념으로 '가정'이 아닌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제2조), 가족의 정의에서는 '사실혼(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까지 합법화하고 있다(제3조). 이 법으로 별거가 쉬워지고 시가·처가와 같은 혼인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도 단절되는 등 개인화와 개별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 가정의례 및 가정의 날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족정책기본법안대로라면 '가정'은 없고 '가족'만 남는다? 어떤 게 이 법안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포함한

'가정'을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렇게 무모하게 깨부술 수는 없다.

특히 '사실혼'을 법적으로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국의 가정학 전공 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현재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의 치료·예방·지지·보장·건강성증진·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가족정책기본법'은 이러한 조합들을 삭제하거나 악화시킴으로써 가정이 해체되고 난 후에 지원하는 복지적 접근에 머물게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는 분명 후퇴이다. 이제 막 시행되어 실제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건강가정기본법'을 2년도 못되어 폐기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가 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정의 붕괴'를 막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널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할 시안이다.

〈前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서인선



빛고을 광주를 사정없이 달구던 뜨거웠던 여름도 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욱 그리운 계절입니다.

예전엔 커피 하면 프립과 스타팅을 넣은 일명 대방커피뿐이었는데 요즘은 휴핑크립과 시나몬, 캐리멜 등을 얹은 다양한 맛과 향의 커피들이 우리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제 기억으로는 불과 몇 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신형 휴대전화를 사서 할부금을 절반도 채 내기 전에 또 다른 신형 휴대전화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 것도.

커피 한 잔이 주는 생각

구멍가게가 아닌 대형할인점에서 오랜 주스 한 병을 선택하는 데에 폐기 시간이 걸리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전부터 생겨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 앤토니 토플러는 그의 최근의 저서 '부의 미래(원제 Revolutionary Wealth)'에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 ▲시속 100마일은 기업 ▲시속 90마일은 시민단체 ▲시속 60마일은 가족제도 ▲시속 30마일은 노동조합 ▲시속 25마일은 정부 관료조직 ▲시속 10마일은 학교 ▲시속 3마일은 정치조직 ▲시속 1마일은 바로 법이라 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기업들에 비하여 정부 관료조직과 법은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로 기업의 뒤꽁무니를 쫓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면한 문제는 이처럼 빠르게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터저려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소스로부터 기업들에 대하여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요구하는 소비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경찰에 바라는 것은 어려운 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수사과정 그리고 이해할 만한 결론을 바랄 것입니다.

이 가을, 뜨겁고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놓고 생각에 잠겨 봅니다.

우리 경찰은 이만큼 성숙하고 까다로워 진 국민의 요구와 수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혹시 예전의 대방커피만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검사〉

담배연기 가득찬 피시방에 아이들 데려오다니

최근을 하다가 가지고 있는 회의 자료 파일을 읽히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인근에 있는 PC방에 갔는데, 한 남성이 6~7살 가량 아이를 흡연실에 놓아두고 컴퓨터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PC방의 경우 흡연실, 비흡연실이 구분이 돼 있다가도 비흡연은 공간인 터에 담배 연기 를 피해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흡연실에서 게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모자라 옆자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PC방 업주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하지만 함께 온 남성 때문에 방지한 듯 하다.

간접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하물며 보호자라는 사람이 담배연기 가득 찬 게임방에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이 옆에서 벼젓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기고



함부로 사용하고, 긁기야 패가 갈리어, 갑분을 바하는 모습은 참으로 황당하기 짜이 없는 일이었다.

설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한건 위주의 실적주의의거나 인기영합적인 성급하고, 과격한 발언을 통해 오히려 소리만 요란하고, 갈등만을 야기하는 우를 벌할 것이 아니라, 합목적적인 방향을 향해, 관계자들의 공감과 협력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점차적으로 추진해가는 속속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켜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법적 인 것과의 모순을 유발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논리나 주장은 정제되지 못

정제된 언어 사용을 촉구한다

만, 인간처럼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뜻한다.

말은 이와같이 인간이 가진 최대의 이기이면서도 또한 이 말로써 일신을 망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얼마전 대법원장이 겸사와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하여 겸찰과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온 사회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

공관중심주의를 강조하려다 빛어진 일로 유감이라고 해명하고, 다른 쪽에 서 이를 수용하여 풍파를 피하려 했던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볼 때는 공관중심주의 건 무엇이건 간에 언어 하나하나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려야하는 법조인들이

갈등과 반목, 불신을 야기하는 언어를

한 언어로 함부로 표출함으로써, 공동체적 단일성을 삼각하게 훼손하거나 온갖 형태의 분란을 야기하는 동인(動因)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의 사생활에서도 자신의 언행을 신중히 하고, 삼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회를 밝게하는 초석이 될 덕목인 것이다.

하물며 국정을 책임지거나, 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만한 중요한 인물들 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자신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미래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철저히 여과되고, 정제된 언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풍암중 교장〉

'주유시 엔진정지' 지키도록 해야

장거리운행하는 고속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휴게소에 들러 기름을 넣는데,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안내문이 주유소에 붙어 있는데 이를 지키는 운전사는 거의 없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만큼 안전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버스회사측은 운전기사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운전에 앞

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설마 주유 과정에서 시동을 켜놓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주유소측에서도 주유전 운전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시동을 끈 뒤 기름을 넣도록 해야 한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법원-검찰 '힘겨루기' 불성사납다

법원과 검찰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법원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임원들의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한자도 고치지 않고 달일 영장을 제청하는 조유의 일이 벌어졌다.

일선 판·검사들이 막말을 쏟아내는 불쌍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법원과 검찰의 충돌은 법조비리 수사,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과 공관중심주의 등을 둘러싸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잇따른 법원·검찰 간의 갈등은 나름대로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지나친 행동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거에도 법·검 양측의 다툼이 있어 있으나 양측 수장이 나서 사태를 수습해온 향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장이 싸움을 지휘하고 일선에 '코미디', '남의 장사'에 소금이 아니라 인분을 들이붓는 격"이라는 드라마로 민망한 설전

수입쌀 부정유통행위 뿌리 뽑아라

수입쌀 부정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화순의 한 도정공장을 적발했다. 이 도정공장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유동시킨 쌀이 시가 30억원 상당의 1천640여t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것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문제는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행위가 갈수록 고묘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적발된 도정공장은 수입쌀을 국산과 섞어도 유통으로는 구별하지 못할 만큼 수법이 치밀했다고 한다.

수입쌀을 부정유통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두 번 물리는 행위다. 중국산 쌀은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면 전남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도정공장은 부당이득을 취하지만 소비자들을 속이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전남쌀의 브랜드화에도 저명성을 줄 수 있다. 전남쌀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쌀 평가에서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다 선정되며 전국 최고의 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산이 훌륭된 '가짜 전남쌀'을 먹어본 소비자들은 전남쌀에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입쌀의 부정유통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미당에 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행위가 횡행해선 쌀산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농업은 한·미 FTA를 앞두고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과 함께 적발된 업자들은 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이 우리쌀 지키기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無等 鼓

미국의 서부 진출이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던 1835년, 멕시코 땅 텍사스에 살던 백인들이 둑립을 시도했다. 멕시코는 군대를 급파했고 '알라모 요새'에서 저항하던 백인 180명은 전멸했다. 영국과 전투를 하고 있던 미국 정부는 벙커 텍사스까지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다.

이후 '알라모'는 미국식 정의와 애국주의의 상징으로 군림하게 됐다. 또 알라모의 의로운 싸움을 기려 미국인들은 텍사스를 '론스타(lone star)', 즉 '외로운 별'이란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텍사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기업의 모태이기도 하다. 1991년 설립된 사모 펀드 회사이다. 론스타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외환은행을 비